



▲사진 뒷줄 좌로부터 김은영씨, 전희림씨, 서경애씨
사진 앞줄 좌로부터 류용기씨, 정갑천 과장, 김수만씨



경남지부 사무과

유일하게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은 네 명. 우리도 한번쯤 출장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내근하는 우리가 편하단다.

건강 때문에 담배를 좀 덜 피우시면 좋겠는데 필자와 서양이 연속 기침을 하고 추운날 창문을 열고해도 담배량은 조금도 줄지 않으시는 서무과장님. 이발할 머리도 없으실것 같은데 남자들 중에서 이발과 목욕을 제일 자주하시는 깨끗한 대머리 과장님이시다.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모습은 인자하신 아버지와도 같다.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사모님 곁으로 가서야 할텐데 바쁜 요즘은 한달에 한두번 밖에 못가서서 안타깝기만 하다. 매일

겨우내 토라져 있던 흰눈꽃이 이제사 무학산 바람따라 마산만 앞바다까지 날려 주었다.

늘어진 벚꽃 가지에 향내를 가득 품고 봄이 음을 자랑하는 균형계가 열리는 진해가 지척에 있고 %섬 해상 유원지도 곁에 있어 육해 모두 쉴 곳이 있기 때문에 가고파가 생각나는 내고향 남쪽보다 마산.

하루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9시가 되면 활기찬 하루가 시작된다.

요즘같이 사업추진으로 바쁠 때는 각 과마다 얼굴 마주치기도 힘이든다.

지부앞에서 외부 주차 차량 단속과 지부 차량 정리로 아침시간과 시간 중간중간에 마냥 바쁘시지만 하시다. 이런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주차장이 넓은 경남지부를 신축하여 이사가야 겠다고 필자외에 모든 직원이 외친다.

몇일만 계속해서 출장을 가면 금세 입술위에 귀신이 오줌싼 흔적(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현상)을 안고 들어오는 류용기 기사님. 주위에서, 벌써부터 그러면 어찌냐고 놀려대면 아직은 팔팔하다고 변명하기에 바쁘지만 가냘픈 몸매는 “어쩔수가 없어!”

차량이 워낙 많은 관계로 기사아닌 다른직원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내부청소 기타 소관업무와 지부사업추진에 대해 남달리 신경을 써서 살찐 여유가 도저히 없다.

류기사님의 꼼꼼한 성격과는 달리 체구부터 듬직하고 능글, 서글, 털털한 고성사나이 김수만 기사님. 경남일대를 건강 1호와 기타 차량으로 주름잡으며 경남지부를 위해 태어난 양 봄철주야 사업추진에 여념이 없다.

서무과에서 제일 작은 여자 서기 서경애양. 작다고 어리게 보면 큰코 다친다. 아무말 없지만 서양의 올해 목표는 아마도 미래의 남편되실 분이 나타나 주길 바라는게 아닌지. 필자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마산에 거주한다는 죄(?)로 항상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니 연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지만 대학캠퍼스에서 익힌 지식과 유머감각으

로 보아 어느날 갑자기 “언니, 나 시집가우”할 재능은 충분히 있는 여자다.

오랜 자취생활로 밥, 빨래, 기타 살림살이는 결혼한 사람 못지 않게 잘한다. 필자가 뒤질 정도로…….

전국지부 총각님들! 하계 연수교육 때 경남지부에서 제일 작고 아담한 여자를 눈여겨 보시길 바란다.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모든게 서먹서먹하기만한 김은영양. 아직은 업무를 잘몰라 조용한 자태를 지키고 있지만 멀지않아 명랑 쾌활하고 예쁜 서무과 아가씨로 키워주고 싶은게 필자와 서양의 마음이다. 매일 계속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직원들의 뒤치닥거리 하느라 김양의 손길은 불편을 떠나지 않는다.

눈발이 날리는 오늘도 출장나간 여러 직원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자자 말은일 처리에 여념이 없다.

작년 한 해. 경남지부가 여러면에서 상위권에 들었으나 1등자리는 차지하지 못했다. 올해는 최고지부를 만들기 위해, 셋방살이를 면하고 청사 확보를 위해, 국장님을 모시고 더욱더 전진하기를……

〈전 희 림글〉

